

연초부터 축산물·과일값 ‘깡충’...설장보기 벌써부터 겁난다

AI 살처분에 닭·오리 고공행진...오리는 작년보다 32% ↑

작년 긴 장마 영향에 생산량 줄었던 사과 등 과일값도 올라

연초부터 계란 등 축산물과 사과·배 등 과일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최근 잇따른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영향으로, 과일은 작년 긴 장마와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 영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장바구니 가격 오름세는 성수기인 다음 달 설 명절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닭·오리고기값은 물론 계란값도 평년보다 훨씬 높아져 있다. 육계 소비자가 가격은 1kg 당 5652원으로 작년엔 비해 10.9%, 평년엔 비해선 7.8% 올랐다. 오리는 1kg당 1만4257원으로 각각 32.1%, 12.4%나 오른 상태다. 계란값도 마찬가지로. 특란 소비자가 가격은

10개당 2035원으로 예년보다 14.4%나 높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KAMIS)에 따르면 특란 한 판(30개)은 6106원으로 6000원대에 진입했다. 한 달 전에 비해 9.7%, 평년 대비로는 12.2% 오른 수준이다.

최근 국내 가금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뤄진 살처분 조치가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가금농장(관상농원 포함)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51건이다. 육용오리 143만8000마리 등을 비롯해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총 153만9000마리에 달한다.

과일값도 올랐다. 기준 사과(후지) 소비자가 가격은 10개당 2만8280원으로 평년 대비 47%

오른 수준이다. 배는 10개당 3만9948원으로 예년보다 27.8% 상승했다.

채소의 경우 배추 등은 낮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방울토마토는 1kg당 8784원으로 전월에 비해 16.4%, 평년보다 15.5% 올랐다.

오이는 10개당 1만5095원으로 한 달 사이 52.8% 올랐고 예년과 비교해서도 29.4%나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가 물가는 지난달의 경우 0.5% 상승하는 데 그치며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상물가를 비롯한 서민 부담은 계속 높아지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농축수산물에 전년동월대비 9.7% 오르며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 기여도를 나타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10.0% 상승하기도 했다.

문제는 일부 품목의 경우 다가오는 설 명절 성수기까지 현재의 높은 가격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본부장은 “작년 봄 냉해에 이어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현재 사과와 배

등 과일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오는 설 명절까지 현재 높은 가격 수준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정부, 342억 투입 귀농귀촌 지원...6개월 농촌 살아보기

올해 예산 전년 대비 70% ↑...주거공간·연수비 지원

정부가 올해 3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귀농귀촌 지원에 나선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저밀도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여건 속에서 주거·일자리 측면의 정책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귀농귀촌 지원 예산은 작년(203억원)보다 68.5%나 증액된 342억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본격 도입된다. 그동안 교육이나 박람회 등 농촌에 대한 간접체험 제공에서 더 나아가 장기간 관

심 농촌 지역에서 실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체 89개 시군에서 약 5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최장 6개월간 주거와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연수비 월 30만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청년 구직자나 40대 이직 희망자, 5060세대 가운데 은퇴 예정자 등을 잠재 수요자로 설정하고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할 방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 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귀농형’ ▲주민교류 등을 돕는 ‘귀촌형’ ▲청년구직자가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해 다양한 일자리

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참여형’ 등이다.

지역별 모집 일정, 주요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귀농귀촌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작년 처음 도입됐던 농업일자리 탐색형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올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총 모집인원을 작년 2800명보다 110% 많은 6000명까지 늘려 운영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제2차(2022~2026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령화 심화 등 지역소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방정부 협력 거버넌스 및 귀촌 지원 정책 강화를 중심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 2021년 설 명절 열차승차권 예매 일정 〉

| 대상지 | 일자 | 시간 | 방법 | 매체 | 대상 노선 | 비고 |
|--------|----------|----------------|------|--------------------|--------------------------|-----------------|
| 장애인 경로 | 1/19 (화) | 09:00 13:00 | 온라인 | 전용홈페이지 (PC모바일) | 전 노선 | 전화접수 선착순 1천명 |
| | | | 전화접수 | 철도고객센터 (1544-8545) | | |
| 일반 | 1/20 (수) | 07:00 13:00 | 온라인 | 전용홈페이지 (PC모바일) |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경북·동해남부선 | 장애인 경로 예매 참여 가능 |
| | 1/21 (목) | | | |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1인당 편도 4매, 왕복(4+4) 8매(전화접수는 1인당 편도 3매, 왕복(3+3) 6매)로 예매 제한

‘설 승차권’ 비대면으로 예매

KTX 19~21일 · SRT 26~28일

승객 간 거리두기 위해 창측만 발매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만 진행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설 승차권을 작년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전화접수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설 승차권 예매는 오는 19~21일 사용기간이다.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하고, KTX 4인 동반석은 1석만 판매한다.

1인당 예매 매수는 편도 4매(전화접수는 편도 3매)로 제한된다.

설 승차권 예매 대상은 2월10~14일까지 5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의 승차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1인당 편도 4매, 왕복(4+4) 8매로 예매가 제한된다.

철도공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아 현장예매를 선호했던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예매일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했다.

이에 따라 예매 첫날인 오는 19일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만 온라인이나 전화접수를 통해 설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오는 20~21일에는 경로·장애인 포함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20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경북·동해남부선 승차권을, 21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승차권의 예매를 시행한다.

이번 예매 기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한 승차권은 21일 오후 3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 좌석은 21일 오후 3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서선욱기자

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 앱에서 링크를 통해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연결되거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직접 접속해야 한다.

철도공사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석 운영을 중지하고 창측 좌석만 발매하는 등 승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서서 가는 사람이 없도록 열차 내 승차구간 연장을 제한하고, 승차권 없이 탄 부정 승차자에게는 부가운임을 10배 부과하고 다음 정차역에 강제 하차 조치하기로 했다.

또 연휴 전날인 2월10일에는 자유석 객실을 운영해 정기승차권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할 계획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할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모두가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SRT 운영사 SR도 올해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100% 온라인으로 26~28일 3일간 운영한다. 예매 대상은 2월10~14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 승차권이 며, 창측 좌석만 판매한다.

26일 온라인 우선예매는 SR 회원 중 만 65세 이상 경로고객과 사전접수에 참여한 장애인고객만 예매할 수 있다.

비회원이거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로·장애인을 위한 전화예매(1800-0242)는 선착순 500명까지 가능하다.

27일은 경부선, 28일은 호남선 명절 승차권 예매가 운영되며, 경로·장애인 고객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PC,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

예매 기간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28일 오후 3시부터 일반승차권과 동일하게 판매한다.

질주하던 비트코인, 20% ‘뚝’...거품 꺼지나

4800만원까지 오른 비트코인, 4000만원 아래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이 최근 4800만원대까지 올랐다가 급락하며 4000만원선이 무너졌다. 변동성이 커지며 거품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3868만원선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지난 9일 장중 사상 최고점인 4795만4000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다. 사상 최고점 대비해 20% 떨어졌

다. 이날 새벽에는 장중 3430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도 지난 8일 4855만원을 찍은 뒤 현재 3870만원대까지 내려왔다.

이는 최근 비트코인이 단기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2000만원, 12월 3000만원을 차례로 돌파한 뒤 새해 들어 4000만원을 넘어선 뒤 급격하게 상승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의 화

두는 차익실현”이라며 “비트코인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더 많은 매수 등 여러 요인으로 급등세를 이어갔는데 일부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자 한때 20% 넘게 급락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금융서비스회사 바벨 파이낸스의 시몬스 쉐 이사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4주 동안 2만 달러 미만에서 4만 달러로 급등함에 따라 가격 조정은 예상됐던 것”이라며 차익실현을 위한 매도가 쏟아져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닥터 돔(Doom)’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월15일이 다가오고 있다. 비트코인 버블이 터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테더(USDT)’ 이슈와 관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테더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는 발행사가 충분한 자금없이 코인을 발행하며 가격을 조정했다는 혐의로 수사받고 있고, 관련 증거자료 제출 일정이 오는 15일이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압력이 높은 가운데 테더 이슈가 투자심리를 자극했다”며 “만약 USDT 발행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날 경우 스테이블코인 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심한 가격 변동성이 줄곧 최대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넉치는 유동성 공급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주목받았지만 급격한 변동성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동취체본부

“쿠팡·쿠팡이츠, 작년 결제액 21.7조원...전년비 41% ↑”

와이즈앱, 20세 이상 소비자 결제액 표본조사해 추정 발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쿠팡과 쿠팡이츠에서 22조원 가까이 결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은 국내 만 20세 이상 소비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 데이터를 표본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와 쿠팡의 지난해 결제 추정금액은

21조7485억원으로 2019년 결제 추정금액 15조4106억원 대비 41%인 6조3300억원가량이 증가했다.

쿠팡의 결제 추정금액에는 종합 쇼핑몰 쿠팡과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포함한 금액이다.

쿠팡은 작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월 결제 금액이 상승하여 1월에는 1조5000억원에서 12월에는 2조3000억원으로 지난 3년의 월 결

제금액 중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이 한국인 만 10세 이상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쿠팡 앱의 월 사용자는 2019년 12월 1287만명에서 2020년 12월에는 1543만명으로 20%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쿠팡이츠 앱의 월 사용자도 2019년 12월 21만명에서 2020년 12월에는 210만명으로 90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봉우기자